삶의질 특별시 서울

SEOUL MY SOUL

Seoul Lifelong Education POLICY Review

Vol. 3 | 2026. 11.

서울 평생학습 정책리뷰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습의 세 가지 쟁점

: 2026년 제1차 서울미래학습포럼 논의를 중심으로

| 정책팀 최믿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요 3
쟁점 1. 학습 내용의 재정의 4
쟁점 2. 학습 경로의 재설계 5
쟁점 3. 학습 공간의 재구성 6
시사점 7
참고문헌 8

개요

바야흐로 대전환의 시대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부터 직업과 사고방식의 변화까지 곳곳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하나의 변화에 적응할 즈음이면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학습 방식만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을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이러한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2026년 제1차 서울미래학습 포럼을 개최했다. "함께 쓰는 미래 시나리오: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습을 상상하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기술·사회·공간·일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학습의 방향을 논의했다.

본 리뷰는 2026년 제1차 서울미래학습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미래학습이 마주한 세 가지 쟁점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6년 제1차 서울미래학습포럼



구분	주제 및 발표자
기조강연	**AI를 넘어 AGI로... AGI 시대가 온다** 맹성현 명예교수 (KAIST)
주제발표 ①	**달라지는 시대, 달라지는 사람들** 이혜원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주제발표 ②	**공간은 어떻게 설계되고 활용되는가** 방승환 책임 (LG CNS)
사례발표	**AI 서비스가 바꾸는 일상의 경험** 김성택 매니저 (SK텔레콤)
패널토론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습을 상상하다** 좌장: 정민승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쟁점

1. 학습 내용의 재정의 | 지식 습득에서 성찰과 판단으로

AI의 발전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AI는 정보를 검색하고 요약하는 것을 넘어 추론하고 복잡한 업무까지 수행한다. 지식과 정보를 얻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학습의 내용과 목표도 달라지고 있다.

맹성현 KAIST 명예교수는 생각의 일부를 AI에 맡기는 '인지 위탁(Cognitive Offloading)'을 AI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로 꼽았다(맹성현, 2024;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26). AI는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판단과 문제 해결까지 AI에 의존하면 직접 고민하고 답을 찾아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에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만큼, 그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 **" AI를 잘 다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에 압도당하지 않고 AI와 공존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AI 시대 교육의 본령입니다. "**
> - 맹성현 KAIST 명예교수

이러한 문제는 AI가 인간의 역할을 모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AI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람은 그 결과가 적절한지 살피고, 필요한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이혜원 트렌드코리아 연구위원이 소개한 '휴먼 인 더 루프(Human in the Loop)'는 AI의 작업 과정에 인간이 개입해 결과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난도 외, 2025;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26). AI에게 무엇을 맡길지 정하고, 제시된 결과를 해석하며,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사람의 몫이다. 이는 AI 시대의 학습이 기술 사용법과 함께 그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까지 길러야 함을 보여준다.

학습에서 인간의 사고와 판단이 중요해지는 것은 단순히 AI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돌아보고, 스스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 역시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민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학습의 네 기둥 가운데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을 언급했다. 이 개념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넘어, 인간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주목한다(Delors, 1996).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적 사고와 공감, 주체적 판단과 성찰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학습의 요소가 된다.

" AI가 사람 대신 일을 처리하면서 우리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AI가 벌어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 - 김성택 SK텔레콤 매니저

따라서 AI 시대의 학습은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익히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엇을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까지 학습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2. 학습 경로의 재설계 | 정해진 경로에서 각자의 선택으로

과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뒤 하나의 직업을 이어가는 삶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일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점과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제시한 '평균 실종'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다(김난도 외, 2022;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26). 나이와 시기에 따라 정해진 생애주기를 따르기보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삶을 설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혜원 연구위원은 일의 의미 역시 특정 직장이나 조직에 소속되는 '직(職)'에서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업(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짚었다(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26).

" '평균 실종'이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인구통계학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같은 순서로 살았지만, 이제는 저마다의 타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

- 이혜원 트렌드코리아 연구위원

이러한 변화는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습이 필요한 시점과 목적이 개인마다 달라지면서, 특정 연령이나 직업에 맞춰 학습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때뿐 아니라 기존의 일을 이어가거나 다른 역할로 전환할 때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학습이 필요하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차례로 이수하는 것을 넘어, 삶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학습을 선택하고 여러 학습과 경험을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은 정해진 생애주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공되기보다, 개인의 삶과 경력 경로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전환마다 학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학습 공간의 재구성 | 강의 중심 공간에서 만남과 교류의 거점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학습 공간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지식과 정보를 얻는 일은 온라인과 AI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 공간은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나누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넓혀갈 수 있다.

방승환 LG CNS 책임은 서로 다른 분야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는 것을 '세렌디피티 미팅(Serendipitous Meeting, 뜻밖의 만남)'으로 설명했다(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26). 각자 고민하던 문제도 다른 분야의 사람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교류는 기존의 학습만으로는 얻지 못했던 지식과 경험을 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이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공간을 찾을 이유와 서로 교류할 기회가 필요하다. 대학 도서관이나 기업의 카페테리아처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공간은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을 연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공간의 기능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 **" 공간을 만든다고 교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찾아올 이유가 있는 곳에서 만남이 생기고, 그 만남에서 새로운 생각이 시작됩니다. "**
> - 방승환 LG CNS 책임

따라서 학습 공간을 강의실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도서관과 문화시설, 생활권 공공시설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도 학습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기존 공간에서 시민 간 교류와 협력이 일어날 기회를 어떻게 만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사점

| 미래학습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방향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 일과 삶의 변화, 공간의 변화는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배우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평생교육 정책은 교육 내용을 정하는 것과 함께, 학습자가 변화 속에서 필요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먼저 학습의 목표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AI가 지식과 정보의 탐색·정리를 대신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는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가보다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평생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지식과 기술의 전달에서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넓혀 갈 필요가 있다.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도 중요하다. 일과 삶의 모습이 다양해질수록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시점에 같은 학습을 제공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구나 필요할 때 원하는 학습을 찾고, 자기 상황에 맞게 배우며, 그 경험을 다음 배움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평생교육이 다양한 학습 선택지를 제시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학습을 별도의 교육시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문화시설이나 생활권 공공시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람과 경험이 연결되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평생교육의 영역이 될 수 있다. 특히 AI가 정보 접근을 쉽게 만들수록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하며 새로운 관점을 얻는 학습의 기회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결국 미래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배우고, 스스로 판단하고, 새로운 관점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평생교육 정책은 프로그램의 수와 공급 방식뿐 아니라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까지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김난도 외. (2022). 「트렌드 코리아 2023」. 미래의창.
- 김난도 외. (2025). 「트렌드 코리아 2026」. 미래의창.
- 맹성현. (2024).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 헤이북스.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26). 「2026년 제1차 서울미래학습포럼 발표자료집」.
- Delors, J. (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UNESCO Publishing.

서울 평생학습 정책리뷰
Seoul Lifelong Education
POLICY Review

Vol. 3
2026. 11.

발 행 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14층
발 행 인 한용진
기 획 문이슬, 최믿음(정책팀)
집필/편집 최믿음(정책팀)
전 화 02-719-6085
발 행 일 2026년 11월
디 자 인 명문인쇄공사

본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인용 및 활용 시에는 출처를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6.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